

유가의 봉사를 만난 한국불교 시식의식의 원용성*

— 16세기 이후의 의문과 의례를 중심으로 —

제1저자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제2저자 곽묘신 (능엄, 세계불학원)

국문초록

유가(儒家)의 봉사(奉祀)를 만나 조선의 불교가 선택하고 있는 의례는 무엇이 있는가. 유가의 봉사에 대(對)하는 불교의례로는 일체의 망령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시식의례(施食儀禮)가 있다. 이 시식의례는 불교의 무차(無遮) 사상 아래 불교 신행의 첫째인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일찍부터 권장되어 왔다. 유가의 봉사를 만난 한국불교의 시식의식은 불교사상의 연기철학을 심분 활용하여 유가의 봉사와 원용하였다. 시식에서 영반으로, 영반은 다시 고힌을 품은 시식의식으로 되돌

* 이 글은 2020.6.20. 역사민속학회 241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공저자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음.

아가고, 자신을 위한 예수재에도 조상을 위한 영반과 시식이 더해지면서 조상과 나는 불이(不二)를 체득하게 한다. 또 일체존재들이 본래 무일물임을,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냈음을 설파하는 화엄산람을 마친 화엄시식도 현교의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밀법의 변공방법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국불교의 시식의식의 본회(本懷)가 흐트러졌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일체 존재에게 보시하고 그 존재들이 떠나없이 해탈 열반을 이루도록 하는 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불교 시식의식의 원용성이 빛나는 점이다.

주제어 : 儒家, 奉祀, 施食儀式, 靈飯, 華嚴山林, 華嚴施食, 預修齋, 顯教, 密教

- 목 차 -

- | | |
|-------------------|------------------|
| I. 서언 | IV. 시식이 더해진 예수재의 |
| II. 시식에서 영반으로 | V. 밀법이 더해진 화엄시식 |
| III. 고훈도 청하는 영반의식 | VI. 결어 |

I. 서언

조선 왕조가 초기부터 유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사회체제를 재편성하¹⁾면서, 4세기 말 공인된 이래 1천여 년 이상 국가사회의 중심 종교로 터했던 불교는 자연 국가 주류사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종교의 역할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여러 시선이 존재하겠지만, 국가의 제 종교적 의례를 집행하는 중심에서 멀어지고, 방계 내지 이단시되는 환경을 맞이한 불교는 자연 민간종교의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종교의 영역에 자리하였다고 해도 불교가 국가불교의 모습에서 완전히 민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불교의 특징이 그렇듯이, 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한 이래 국가불교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전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불교는 민간종교의 터 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었다. 보수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연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불교가 연기철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철학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물과 사건의 발생과 소멸을 설명하는 철학이다. 일찍이 지적되고 있듯이 ‘조선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국가의 중심종교로 선택하게 된 일정 원인은 불교의 지나친 세속화와 사원경제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내적 원인도 기연(機緣)이 된 역사현상으로 보는 것이다.’²⁾ 연기철학을 하는 불교는 결국 불교에 주어진 현실에 다시 응동보화(應同普化)하는 걸림 없는 역사적 원리성(歷史性)을³⁾ 발휘하면서 새로운 불교의 몸짓을 빚

1) 조성윤, 「정치와 종교」, 『사회와 역사』 제53집(쑤문학과지성사, 1998), p.14.

2) 이백상, 한우근 등의 견해.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불교시대사, 1993), pp. 147~148, 재인용.

3) 김영태, 『한국불교사』(경서원, 1986/1997), p.17.

어낸다.

이 글은 유가(儒家)의 봉사(奉祀)를 만나 조선의 불교가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남겨진 의례자료를 통해 불교사상의 핵심적인 실천의례인 시식의식의 원용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유가 봉사에 대(對)하는 불교의례로는 일체의 망령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시식의례(施食儀禮)가 있다. 이 시식의례는 불특정 다수의 배고픈 존재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으로 불교의 무차(無遮) 사상 아래 불교 신행의 첫째인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일찍부터 권장되어 왔다. 시식의식을 대표하는 수륙재가 송나라 시대 때는 민간뿐만 아니라 조야에 조상제사로 유행하였다.⁴⁾ 청하였거나 앉았거나 찾아오는 이들은 차별하여 막지 않고, 무차로 음식을 베푸는 의례로 고려시대에 유입되어 설행되었다. 그 특징은 특정 혼령을 위해서 수륙재회를 열지만 무주고혼도 함께 청해 시식하는 것이다. 불교는 내 부모와 남의 부모나 산자나 망자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대표적인 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우란분재의 근원이 되는 『목련경』에는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오백승재를 올리자 목련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함께 있던 죄인들이 모두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으며, 『지장보살본원경』 「이익존망품」에는 망자를 위해 재를 올리면 망자와 산자가 동시에 공덕을 받게 되는데 산자가 그 공덕을 칠분의 육이나 받는다고 설하고 있는 것들이⁵⁾ 그것이다.

불가(佛家)에는 일찍부터 조상이나 선대 스승들에게 올린 제문⁶⁾ 등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 불교가 일찍부터 조상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보이

4)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知識出版社, 1982/1989), p.384.

5) 『지장보살본원경』(T13), p.784.

6) 義天, 「祭文王文」, 「祭芬皇寺曉聖文」 등 11편의 祭文, 『한국불교전서』 4집, pp.554~555.

지만 “예조에서 아뢰었다. ~ 고려 왕조의 풍속에는 기일에 일찍이 재계를 하거나 제사는 지내는 일이 없었고, 오직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일만 해왔습니다.”⁷⁾고 하거나 “기일에 승려들에게 밥을 먹여 왔다[飯僧]”⁸⁾고 하는 실록의 기록은 불교 기일제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록 기사의 신뢰성은 차치하고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반승만 했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보시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망자를 위해서 경전을 읽어주거나 삼보에게 제를 올림으로써 그 공덕으로 망자의 왕생극락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구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가(儒家)의 봉사는 조상에 한정되어 설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가의 봉사가 국내에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고려말기라고 보인다. “공양왕 2(1390)년 2월 민가의 조상제례 시행에 대해서 제례에 올린 제물의 내용을 시달하였다. 내용은 외조부모 및 처부모의 제주가 없는 자는 정조(正朝, 元旦), 단오, 중추 및 각 기일을 당하면 세속의 제사 의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며, 행례 의식은 일체 『가례』에 의거하여 마땅함을 따라 줄이고 더한다. 대부 이상은 선조3세를 모셔서 제를 지내고, 6품 이상은 선조2세를 모셔서 제를 지내고, 7품 이하부터 서인까지는 부모의 제만을 지내도록 하였다. 또한 가묘를 세우고 초하루 보름마다 반드시 전을 올리고, 출입할 때마다 고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기제사 계절제사 등에 관한 예절을 시달하였다.”⁹⁾ 가묘를 세우고 삭망(朔望)에 예를 올리고 봉사하는 의례가 시행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대봉사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는 이후 2세기는 족히 지난 뒤의

7) 『태조실록』 권15, 1398년 12월 15일조.

8) 『태종실록』 권1, 1401년 5월 10일조.

9) 조희선·김용자, 「제례 진설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 제9호(성균관대학교 생활과, 2006); 최규홍, 「조상제사에 대한 철학적 고찰」(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7.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의 제자 사계 김장생 때에 이르러서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4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¹⁰⁾고 하는 언급으로 볼 때, 17세기 이후에 유가의 봉사는 사대봉사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백 년이 채 못된다¹¹⁾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가의 봉사를 만난 불교가 선택한 그들의 몸짓은 어떻게 언제쯤 전개되었을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교의례를 담고 있는 의문이나 의례, 의례를 설행하게 된 연유를 담은 소문(疏文)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의 편찬과 간행, 그리고 그곳에 담긴 차서와 내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이 글의 일차 목적이다. 이를 통해 유가의 봉사를 만나서 보여주고 있는 불교 몸짓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안목을 밝히고 넓히는 데 조금은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유가의 봉사가 사대봉사(四代奉祀)로 확립되었다고 용인되는 16세기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의문 몇 점과 그 이후의 대다수 불교의문과 의례를 대상으로 그곳의 징표를 분석해볼 것이다. 유가의 봉사를 만난 불교의례의 양태와 그 변용을 살펴보며 한국불교 시식의식의 원용성이 드러나 거기 담긴 불교의 민속적인 특징까지 파악될 수 있다면 이 글의 목적이 조금은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 조준하, 「우리나라의 제사문화와 종묘대제」, 『한국사상과 문화』(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p.314.

11) 조성윤, 「정치와 종교」, 31.

II. 시식에서 영반으로

이미 언급하였듯이 유가의 제사에 준하는 불교의례는 시식의식이었고, 시식의식의 대표적인 의례는 수륙재였다. 수륙재의문의 갖춘 이름은 적지 않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1342년 편찬된 죽암 유(猷)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¹²⁾ 비록 후대 간행되었으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협주에서 소본이라 지칭되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¹³⁾ 1269년 송의 지반이 편찬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¹⁴⁾ 등인데, 명계와 양계, 수륙, 무차, 성범, 평등, 수재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의 중심은 재의(齋儀)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재는 일반적으로 목욕재계 등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서의 재는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이다. 음식을 나눠 먹임으로써 산자와 망자가 다 같이 공덕을 받아 더 나은 세상[이상향인 극락 등]에 가는 것이다. 이때 산자는 당시 의례에 참석한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망자는 당일 재회에 초청되는 망자들이다. 망자는 재회를 올리는 이와 관련 있는 이들을 비롯해 제사 등을 올려줄 이가 없는 무주고혼까지 다양하다. 16세기까지 시식의문이 담긴 문헌자료는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이하 BR이라 칭함)¹⁵⁾에 수 편 실려 있다. 『진언권공』에 합철된 『삼단시식문』과 1573년 보현사에서 간행된 『권공제반문』 등이다. 이후의 자료로는 1634년의 『영산대회작법절차』, 1661년의 『오종범음집』, 1694년 『금산사제반문』, 1719년 『해인사제반문』, 1826년 『작법귀감』과 각종 요집 및 청문 등이 그것이다. 또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의 ‘신

12)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선리연구원, 2011), p.12.

13)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 36호(한국선학회, 2013), p.263.

1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BR1), pp.573~620; 정명희,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書 研究』(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3), p.40.

15) 박세민 편,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BR, 1993), 전4권.

김성문헌¹⁶⁾에도 10여 종 이상의 『제반문』이 있다. 또 수록재 예수재 관련 자료들 또한 시식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자료들에서 보이는 의례 의식들을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 각 의례의문에 어떤 의례들이 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례의 기능이 이전의 것들과 무엇이 같고 다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등일 것이다. 그러므로 각 의례의문에 실린 목차와 차서는 의례를 수용하며 설행한 당대 불교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수종의 의문 목차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장 현존하는 비교적 고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삼단시식문』(1496)은 간략한 수록재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칠칠재 등에 활용된 시식의문이다. 이 의문에는 시식을 베풀기 위해 당해 혼령과 무주고혼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수록재의문에서 확인되는 동청의 그것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다. 가장 큰 형태의 시식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수록재회에서 당해 혼령, 즉 재를 올리는 재자의 조상혼령이 먼저 청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결수문』의 청사처럼 청해지고 있다.

일심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진진찰찰[모든 곳]의 시방삼세 국내 국외거나 족성이 있거나 없거나 제왕이나 후비, 문무 백료(관), 존귀하거나 비천한 남녀 등 일체 인간세계 사람들과 오취(五趣) 수라의 각 급 권속과, (別薦入此, 별도로 천신제사를 받을 혼령을 이곳에서 부름) 다른 세계와 이곳 세계의 열 종류 고훘, 풀과 나무에 의지한 일체의 귀신, 지부의 풍도 대소 철위산과 근본과 가깝고 먼 곳의 일체 지옥, 향하사의 아귀, 법계의 방생(축생), 중음과 모든 유정(有情) 등 이와 같은 셀 수 없고 가없으며, 하나하나의 세계에 가득한 하나하나 모든

¹⁶⁾ <https://kabc.dongguk.edu/Home/Contents?ccode=03&tcde=08&naviKey=1>

이들이시여,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받들어 구름수레 타고 도랑에
모여 모두 명계를 벗고 범공양을 흠뻑 입으십시오.¹⁷⁾

봉사의 대상은 조상에 국한되는 유가의 봉사와 달리 불교의 시식의식
에서는 불특정의 다른 혼령들을 함께 청하고 있는데, 〈삼단시식문〉에서
는 당일 천신(薦新)을 올릴 당일 재회의 특정 혼령이 먼저 초청되고 있
다. 이것은 19세기 이후 나타나는 〈영반(靈飯)〉이라는 시식의식이 별도로
독립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승(飯僧)이 살
아 있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라면 〈영반〉은 문자 그대로 혼령
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제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재자의 조상이나 추
천하려는 특정의 혼령에게 제수를 올리는 의식이 〈영반〉이라는 것이다.
물론 ‘영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의문은 19세기 초반에 간행된 『작법
귀감』에 이르러서야 확인되지만 15세기 말의 『삼단시식문』에 그 단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산자와 망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로 불특정 다수의
존재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베풀어주는 불교의 시식과 달리 특정의 혼령
을 위주로 하여 제사 올리는 형식의 〈영반〉의 형태가 15세기 말에 보이
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수문』이나 『중
례문』, 『지반문』의 소청문의 그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세 의문은 위 예
처럼 혼령의 계급에 따라 재회의 특정 혼령이 초청되고 있지만 『삼단시
식문』에서는 우선 소청된다는 것이다. 1694년 『금산사제반문』의 〈시식의
문〉은 뒷날 〈전시식(奠施食)〉으로 지칭되는 수륙의문의 축약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륙의문의 그것과 유사하게 증명의 존재들 다음에 소청하
고 있다.¹⁸⁾ 그렇지만 수륙의문이나 시식의문에서와 달리 완전한 〈영반〉

17) 『결수문』(BR1), p.631하.

18) 『금산사제반문』(BR2), p.508하.

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적지 않는 세월이 이격한 이후이다. 19세기 『작법귀감』은 〈상용영반〉과 〈종사영반〉을 신고 있는데, 이는 조상신의 개념이 완전히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가의 봉사처럼 아니면, 인도의 조령제처럼 마치 “제주는 죽은 조상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 나가며 그 때마다 편다를 한 개씩 공양하”¹⁹⁾는 형식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망자는 중음[中有]이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생의 몸을 받아 재탄생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영반의 의미는 조상신이 되어 매년 후손의 제사를 받는 조상으로 저승에 머물며 때때로 후손이 청하면 와서 제수를 받는 것이다. 〈영반〉의식은 전통 불교의 윤회관이나 생사관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저승(극락)에 가서 공덕을 닦아 완전한 해탈열반을 이루어 윤회를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지만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조상신의 모습으로 남아 때때로 와서 제사 받는 조상신을 용인하는 것은 불교의 비고정적인 사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보시바라밀로 시작된 불교의 시식은 16세기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특정의 조상 혼령에게 기일 등에 제사 지내는 〈영반〉이라는 의식의 형태가 발아되고 차츰 그 형태가 발전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영반의식〉이라는 새로운 의례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Ⅲ. 고훈도 청하는 영반의식

그렇다면 외로운 혼령 등 일체 존재들에게 음식 등을 베풀어주는 시식의식과 영반의식의 특징과 차이는 무엇이며, 또 이것들은 그 본래의

19) 中村元 著, 金知見 譯, 『佛陀의 世界』(김영사, 1984/2011), p.61.

가능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자. 시식의식의 특징은 그 대상이 무한정이며, 영반은 특정하다고 할 수 있다. 제사 또는 시식 받을 대상이 무한하면 유한한 존재들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들에게 시식을 할 수 있을까. 무한한 존재들에게 유한한 존재가 시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다라니의 가지력(加持力)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식의례의 근원경전의 하나인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래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에서 설하는 붓다의 법음을 들어보자.

다라니법으로 가지한 이 음식과 물은 그 양이 법계의 음식과 같아져 다함이 없어서 모두가 다 성과(聖果)를 얻어 괴로움의 몸을 벗어난다. 붓다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다라니법을 받아 지녔으므로 그대의 복덕과 수명은 늘어날 것이고, 아귀들은 하늘 나라에 가고 또 정토에 가고 인천의 몸을 받을 것이다. 시주로 하여 금 장애를 굴러 재앙을 없애며 수명이 더욱 늘어나고, 현재는 수승한 복을 불러들이고 미래에는 보리를 얻는다.”²⁰⁾

시식의례의 핵심인 ‘다라니법’으로 가지를 하면, 한 그릇의 음식이 갖가지 감로음식으로 변해지고 그 양은 법계의 음식과 같아진다. 그렇게 되어야만 다함없는 이들이 먹을 수 있고, 먹고 나면 괴로운 몸을 벗어나게 된다. 또 시식의례를 행한 시주는 복덕과 수명이 늘어나고 시식을 받는 아귀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정토에 나며 인간의 몸을 받는다고 설하고 있다.²¹⁾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려는 시식은, 결국 다라니인 일체위덕진언을 염송하여 한 알의 곡식에서 수없는 곡식이 나오게 되어 가지력에 의

20) 不空 譯, 『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T21), p.469a.

21) 이성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34~35.

지하여 수없는 존재들에게 시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달리 영반은 특정 대상에게 올리는 제사와 같으므로 다라니로 제수를 변식하는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진수(제수)를 마련한 후손의 정성이 강조된다. 『작법귀감』에는 이렇게 혼령에게 아뢰고 있다. “나의 한 그릇 밥은 향적세계에서 내려온 찬이 아니니 나의 한 조각 정성을 받아들여 선열의 음식으로 배불리 드십시오. 갖가지 진수를 영전에 나열하오니 흠향하소서.”²²⁾ 또 『석문의법』 〈중사영반〉에는 재자가 올리는 진수(제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온 것도 아니라, 오로지 재자의 정성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영전에 나열한 제수를 흠향하시라”²³⁾고 아뢰고 있다. 다라니를 염송하여 음식 등이 변식되는 가지로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재자(제자)의 정성으로 영전에 제수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존재들에게 음식 등의 재물 보시와 진리 설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실천하는 〈시식의식〉에서 영반이 등장하였다고 해서 영반이 특정의 혼령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의식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 영반의 원형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식의식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존재에게 음식 등을 베푸는 기능을 품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에는 어쩔 수 없이 복잡한 의례의문을 훑아보지 않을 수 없다. 원문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도 어렵고, 작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영반의식의 완결형태는 대체로 이렇다. 『작법귀감』에는 ‘거불, 보소청진언, 청사, 안좌진언, 착어〔법어〕를 겸한 권공, 공양진언, 회향진언, 법식계〔권반계〕, 봉송의 반야심경 염송’²⁴⁾의 차서가 제시되어 있다.

22) 巨璇 撰, 『作法龜鑑』(BR3, 1826), 391상.

23) 安震湖 編, 『석문의법』하권(만상회, 1935), 5.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에 실린 순서는 이렇다. ‘거불, 창훈 재설, 착어, 진령계와 보소청진언, 영가청(청사, 향연청, 가영, 안좌진언, 다계), 진반, 풍송가지(변식진언 등 사다라니, 청양성호, 시귀식진언,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권반계, 법시(반야·법화·열반계송), 정근, 안과 편’²⁵⁾이다. 약 2백 년을 격한 두 〈상용영반〉의 차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법귀감』 〈상용영반〉은 제사를 받을 당해 혼령만을 청하고, 오로지 재자의 정성으로 마련한 제수를 드시기를 청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은 혼령을 청하는 방식부터가 창훈 이후 다시 진령계와 보소청진언을 위시하여 영가청을 하고 있다.²⁶⁾ 또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은 진반 이후 변식진언의 가지공양을 행하고 있다. 진반으로 흠향을 청한 다음에 변식을 하고 귀신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영반이라고 하지만 제사에 청하는 존재와 함께 수없는 혼령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에는 이를 ‘영가청’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때의 영가청과 처음에 행해지는 창훈의 대상은 특정의 혼령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의 모인 영가를 청한 다음 두 번째는 “영가위주 상서선망부모 다생사장 원근친족 등 각열위열명영가 차도량내외 동상동하 일체유주무주 고훘불자등 각 열위열명영가”²⁷⁾라고 하여 일체의 혼령들을 창훈하고 있다. 당일 재회의 주인공이 중심이 되어 윗대 조상과 이웃에 살았던 일체 유주무주 고훘불자들을 창훈하는 모습은, 이어지는 창훈[영가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일 재회가 “제당○○지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특정 혼령의

24) 巨璇 撰, 『作法龜鑑』(BR3), p.391.

25)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조계종출판사, 2003), pp.358~367.

26) 창훈과 창훈의 이중구조로서 그 대상이 다른 곳에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성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pp.42~47.

2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조계종출판사, 2003), p.359.

칠칠재나 기일재를 봉행하면서 특정 혼령의 인연 혼령을 창혼하고 청혼하여 진반(進飯)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영반은 불특정 다수의 존재를 위한 시식이 아니라 특정 혼령에게 올리는 제수라고 할진대 영반에도 혼령을 위주로 한 인연 혼령들과 유주부주의 고향들을 같이 청하여 제수하는 모습은 영반에 고향도 품고/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의 혼령을 위한 영반이 특정의 혼령을 위한 영반으로 국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식의식의 모습으로 변형돼 있다.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에는 특정 혼령 외에 다른 혼령들까지 청하는 의식의 명칭을 영가청이라고 하고 있지만 『작법귀감』 〈중사영반〉에는 “고혼청과 함께 합해서 할 때”²⁸⁾라고 하며 같이 청해지는 대상을 고향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될 때 당해 혼령과 고향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영반이 수록재의문에서 같이 당해 혼령이 가장 먼저 불리지 않고, 일체 혼령의 차서에 따라 당해 혼령이 불릴 곳에서 불리게 되어 영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영반의식이 등장하는 단초는 15세기 말에도 보이지만 영반이라는 명칭을 안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초반의 일이고, 그것이 영반의 고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식의식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고향을 청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은 20세기 의문인 『석문의범』(1935)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석문의범』 〈상용영반〉의 의식 절차는 『작법귀감』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대, 곧 현대의 〈상용영반〉은 최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에서 고향들도 함께 청해서 음식을 베푸는 시식의식을 안게 된 것은 의외로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통일법요집』 〈상용영반〉은 그 초판인 『통일법요집』(1998)에서 〈상용시식·영반〉²⁹⁾ 의식명

28) 巨璇 撰, 『作法龜鑑』(BR3), p.391하.

칭을 부여하면서 상용시식과 영반을 동일한 의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한다. <상용시식·영반>이라고 명칭하면서 뒤의 영반을 작은 활자로 인자하고 있는데 영반을 대등하면서도 시식의 하위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시식과 영반을 대등한 의식으로 통합하면서 창훈과 청훈의 두 초청 형식이 동거(同居)하는 형태를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시식에서 영반으로 독립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고향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시식을 안은/품은 영반의식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한국불교 시식의식의 고유한 모습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애로 점을 낳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IV. 시식이 더해진 예수재의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의 하나는 생전예수재라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의 근원경전은 『예수시왕생칠경』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예수시왕생칠경』이 예수 신앙의 근원경전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한국불교에서 생성된 생전예수재의 근원경전이라고 결론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빛을 갚고 공덕을 닦는다’고 하는 예수재의 근본정신에 비춰볼 때 『예수시왕생칠경』이 예수재의 근원경전이라고 칭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경전에서 제시하는 예수신앙의 행법은 현재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생전예수재의 그것과 자못 거리가 있다. 『예수시왕생칠경』은 초하루 보름에 삼보에 공양 올리고 시왕단을 설치한 다음에기도하라는 등으로 윤달에 칠칠재 혹은 당일재로

29)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조계종출판사, 1998), p.209.

설행하는 생전예수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생전예수재는 수록재의 중위소청공양의 하위인 명부시왕을 초출하여 생성된 의례라고 볼 수 있다.³⁰⁾ 수록재의 형태로 설행되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당장 알 수 있다. 수록재의 형태로 진행되는 생전예수재는 수록재가 타자, 곧 다른 혼령들을 위한 대타적인 의례인 데 비해 자신의 입장을 생전에 칠칠재로 스스로 봉행하는 의례이다. 자신을 위해서 수록재의 형태로 상위의 성현과 중위의 성현, 그리고 명부시왕의 권속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전생에 진 빛을, 명부전을 만들어 갚는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생전예수재의 진행 형식은 영산재의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산재는 망자를 위한 사십구재를 가장 성대하게 행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산재의 형식으로 생전예수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고유한 의례라고 할 수 있는 생전예수재의 주요 구조는 16세기 중엽 간행되기 시작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의 12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 예수재 연유 아뢰
- 사자를 청해 재회가 열렸음을 알림
- 상위의 성위를 청해 목욕을 하고 자리에 모심
- 중위의 시왕을 청해 목욕을 하고 자리에 모심
- 하위의 고사를 청해 성현께 인사하고 자리에 모심
- 상위의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림
- 중위의 시왕과 권속에게 공양을 올림
- 하위의 고사관 등에게 공양을 올림

30) 이성운, 「예수재의 의문 구성과 의례 설행의 특징」, pp.130~138.

- 공양의 공덕을 널리 회향함
- 상위와 중위의 존재들을 봉송함
- 저승재물로 변화하여 명부증을 돌려보냄
- 범회를 회향함³¹⁾

그렇지만 후대에 간행되는 의문에서 확인되는 생전예수재는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먼저 17세기 중엽의 『오종범음집』에는 금은전을 만드는 조전의식이 추가되어 있고, 18세기 초반에 빈번히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예수재 의례 절차의 특징은 재전[오전]에 법화경 염송의 영산작법을 행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1928년의 사기가 있는 필사본 『예수의문』³²⁾의 예수재는 19세기 이래의 예수재에는 조전의식이 전에 현왕청 가람단 풍우단 용왕단이 추가되고 있다. 현대의 전북불교연합회 『예수의문』³³⁾의 예수재에는 완전한 천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련 대령이 정착하고 있지만 영산작법은 의식의 차례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현대 예수재의례를 보여주는 의문으로 박삼우가 편역하고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보유자 장벽웅이 감수하여 1984년 보령각에서 출판한 『예수재의범』³⁴⁾이 있다. 이 의문은 대령·관욕을 통한 영산작법과 괘불이운, 식당작법, 순당절차 등이 예수재 의례에서 봉행되고 있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예수재 의례 구조에 비교하면 시련, 대령·관욕, 괘불이운, 영산작법, 식당작법, 조전점안, 신중작법, 순당절차 등 9개의 의식이 추가되었다. 생전예수재의 변천과 변용 사례를 의문을 중심으로

31) 大愚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BR2), pp.67~87.

32) 불기 2954(1928)년 2월 상완, 획린 백화도량 '구암'이라는 사기가 표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필사 연도는 소급될 것으로 보인다.

33) 김춘명 편, 『預修儀文』, 전북불교연합회, 1988.

34) 박삼우 편역, 장벽웅 감수, 『예수재의범』(보령각, 1984), 목차.

로 도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 순수 예수재의식
- 『오중범음집』: 조전의식 추가
-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법사이운, 영산작법 추가
- 20세기 초반 『예수의문』: 현왕청 가람단 풍우단 용왕단 추가
- 1988년 『예수의문』: 괘불이운 시련 대령 관육 추가
- 1984년 『예수재의범』: 전북 『예수의문』보다 영산작법 식당작법 순당절차 추가

16세기 중반 한국불교에서 명부시왕에 대한 예수신앙이 수록재 형식의 생전예수재로 성립된 이래 점차적으로 의식이 추가되어 오고 있는 모습이다. 순수한 예수재의식이라고 보이는 16~7세기 생전예수재 의식에 시대를 내려오면서 망자의 천도를 위한 영산작법이 추가돼 행해지게 되면서 생전예수재가 산자와 망자를 위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산자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닦는 생전예수재를 망자의 사십구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주장이 가능하지만 산자를 위한 의식(儀式)에 망자의 의식이 더해지게 되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효행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명부전을 만들고 시왕 번을 제작해 걸고 전생 빛인 명부전(冥府錢)을 저승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소전진언(燒錢眞言)이 행해지는 생전예수재는 수록재와 더불어 가장 민속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공덕을 지을 때 조상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의식이 더해지면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겨진 불교의문 자료는 초간본 복간본 필사본들이든 그 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설령 간행 연도가 이르다고 해도 그

이후 첨가된 사기(私記)인지 협주인지 여부가 불명한 것도 많다. 하지만 시식을 하라는 지시가 분명한데³⁵⁾ 의례 현장에서는 조상제사에 해당하는 대령·관육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지시는 고흘의 시식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예수재를 설행하는 재자의 특정 조상 혼령을 위한 의식이 생전예수재 본 의식 이전에 설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생전예수재 현장에는 무주고혼을 위한 전시식과 예수재 재자의 선대조상을 위한 관음시식이 동시에 설행되고 있다.³⁶⁾ 해서 현대의 예수재 의문에는 두 의문이 다 실려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조상숭배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가의 봉사는 산자를 자기 실행기도의식인 생전예수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생전예수재의 본래 의미에 더해진 시식과 영반의식은 결국 유가의 봉사를 담으면서도 불교의 무차제도중생이라는 본회를 살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V. 밑법이 더해진 화엄시식

한국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시식의식에는 시식과 영반으로 나뉘는데, 시식에는 전시식 관음시식, 구병시식, 화엄시식이 있고; 영반에는 종사영반과 상용영반 및 헌식규가 있다.³⁷⁾ 이 가운데 시식의 전시식과 관음시식, 구병시식, 화엄시식을 재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제대로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화엄시식에서 화엄이라는 경전의 명칭과 관음시식에서

35) 大愚集述, 『預修十往生七齋儀』(BR2), p.86상.

36) 대표적인 생전예수재로는 경기도 양주 청련사에서 확인된다.

37) 安震湖 編, 『석문의범』하권(만상회, 1935), pp.2~3.

관음이라는 인격명사가 들어있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혼선이 있어 보인다. 가령 관음시식이라고 하니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곳에서는 지장시식, 정토신앙을 하는 이들은 정토시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음시식 이외에도 삼보시식이라는 명칭도 존재하고 왕공시식이라는 명칭도 존재한다. 그 같은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식의 식의 관형어 인격명사가 시식을 받는 존재인지 시식을 하게 하는 존재인지조차 불분명해진다. 관음시식을 잘못 이해하면 관음시식에서 관음시식을 위해 입곡(粒穀)을 변식하는 변식다라니를 설해준 소유자라는 의미와 연결되지 못한다. 관음시식이 관음시식인 이유는 간단하다. 시식의 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식다라니의 설주가 관음보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과문이었지만 아직까지 중국불교 의문에 관음시식이라는 의식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가염구시식이나 몽산시식이라는 명칭만이 존재한다. 몽산시식은 몽산의 감로법사가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요가염구시식은 연구다라니경의 시식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음시식이라는 명칭은 한국불교에서 생성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화엄시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화엄경을 소의경전으로 베풀어지는 안거 즉, 화엄산림 기간에 상단과 중단에 마지를 올린 후 거행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고, 법화산림의 경우라면 관음시식을 거행해야 하고,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반야산림이나 시다림산림 등 해당 산림의 경전이나 의문을 바탕으로 이뤄진 시식문이 없을 경우 화엄시식이나 관음시식 어느 쪽을 거행해도 무방하다”³⁸⁾고 설명한다. 화엄시식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화엄시식의 구조와 성립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9세기 초반에 편찬된 『작법귀감』에는 화엄시식이나 관음시식은 보이지 않는다. 두 시식의문이 물론 그 이전에 성

38)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한국불교출판부, 2001), p.235.

립되었다고 보이지만 『작법귀감』에는 상용시식, 구병시식, 상용영반, 중사영반, 통용진전식이 실려 있다. 그럼 화엄시식의 편제를 살펴보자. 『석문의범』에는 ‘거불, 불신계, 창훈, 보산계, 출생계, 보공양진언, 사다라니, 송경, 시식계, 시귀식진언, 시무차법식진언, 발보리심진언, 보회향진언, 십념, 안과편’³⁹⁾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불교의식각론』Ⅲ에는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에서 현재 거행되고 있는 화엄시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보회향진언과 십념 사이에 ‘권반계, 반야계, 여래십호, 범화계, <장엄염불>의 시식의식을 보입하여 제시하고 있다.⁴⁰⁾ 제시된 화엄시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화엄시식이 화엄시식인 연유는 무엇인가. 관음시식이 관음보살이 설한 변식다라니로 변식하여 시식하도록 하는 변식다라니의 설주이므로 관음시식이라고 하였다면, 화엄시식은 시식방법이 화엄경의 변식과 시식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시식의 시식방법으로 채택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 (ㄱ) 普放光明香莊嚴 種種妙香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⁴¹⁾
- (ㄴ) 又放光明茶莊嚴 種種妙茶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靈駕衆
- (ㄷ) 又放光明米莊嚴 種種妙米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孤魂衆⁴²⁾
- (ㄹ) 又放光名法自在 此光能覺一切衆 令得無盡陀羅尼 悉持一切諸佛法⁴³⁾

『화엄경』 「현수품」의 공양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ㄱ)은 현수품의 대덕존에게 공양 올리는, 연이어지는 계송 가운데 채집하여 첫 자만 ‘우

39) 安震湖 編, 『석문의범』하권, pp.83~84. 심상현의 명칭을 따라 표기하였음

40)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 pp.38~41; 300~314.

41) 『대방광불화엄경』(T10), p.74b.

42) 安震湖 編, 『석문의범』하권, p.83.

43) 『대방광불화엄경』(T10), p.76a.

(又)자를 ‘보(普)’자로 교정하였고, (ㄴ)·(ㄷ) 양 계승은 첫 구절의 공양물을 ‘다(茶)’와 ‘미(米)’로 변용하고 공양 받는 대상을 영가중과 고훈중으로 향하고 있다. 의문의 원전 『화엄경』 「현수품」에는 9차의 공양이 시설되고 있는데, 공양 받는 존재는 모두 조세등·제불·대덕존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광명으로 장엄되는 공양물이 장엄되는 것이 향(香), 말향(末香), 의(衣), 보(寶), 연(蓮), 영(瓔), 당(幢) 등이다. 한국불교 화엄시식처럼 차(茶)와 미(米)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화엄시식에는 향을 위시하여 다와 미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불교 화엄시식에 다와 미로 전용되게 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불교에 정착된 육법공양의 향등화(香燈花) 다과미(茶果米)의 그것에 호응해 향등화에서 향을, 다과미에서 다과를 채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화엄경』 「현수품」의 공양 방식은 생각해 볼 점이 더 있다. 화엄경의 이 공양계승은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다. 보살이 오른손에서 광명을 발하자 그 광명중에서 향수가 허공에서 비가 되어 내려 시방제국토를 뿌려 조세등께 공양하고, 또 광명을 놓으니 향으로 장엄되어 갖가지 오묘한 향이 휘장이 되어 모든 불국토에 흩어져서 일체의 대덕존께 공양하는 형식이다. 이는 현교(顯敎)의 변공(變供)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관음시식의 변식다라니라는 밀교의 방법에 의해 공양 가지되는 것과 대비된다. 거기에 더해서 변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공양을 받는 대상이 영가중과 고훈중이라는 것이다. 영가는 현재 한국불교에서 혼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영가(靈駕)나 선가(仙駕)가 한국불교에서 쓰인 역사는 자못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위(神位)의 형식인데 가마 위의 혼령이라는 의미로 혼령을 지칭할 때 영가라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지만 정착된

44) 이성운,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변공의례의 형성과 수용」, pp.358-365.

역사는 한국불교사의 그것과 견줘도 결코 짧은 것 같지는 않다. 이때 영가는 재공을 올리는 제자의 조상임이 드러난다. 영가는 고훈과 대비되고 있는데, 영가는 삼대가친의 영령을 지칭하고 고훈은 무주고훈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화엄시식에서 대덕존에 공양 올리는 형식으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가중에 공양 올리고 있는 모습 또한 유가의 봉사를 만난 불교 시식의식의 원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시식에 밀법이 더해졌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자. 밀법은 밀교의 행법이라는 뜻으로 밀교의 진언이 그 중심 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시식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교의 시식방법으로 시식하는 형식이다. 가령 불교에는 현교의 방법으로 예를 올리는 보례계와 밀교의 방법으로 예를 올리는 보례진언이 하나의 짝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례를 현밀의례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짜인 의식을 현밀의례라고 한다. 대표적인 현밀의례로는 요나라 도진(道殿)의 『集顯密圓通成佛心要集』(T46)이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 의례는 존재를 청할 때 계송인 진령계와 진언다라니의 보소청진언이 하나의 짝으로 구성되었다. 공양계송·공양진언(供養偈呪), 헌좌계송·헌좌진언(獻座偈呪) 등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밀법은 밀교다라니의 변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교인 화엄경의 변공 시식방법을 택하고 있는 화엄시식에 밀법의 다라니로 변공하는 형식이 더해졌다는 것은 현밀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이지 못한 의견이다. 그렇지만 현밀의식이라고 할 때의 형식은 변공과 공양이라는 형태가 동시에 현밀이어야 하는데 화엄시식은 공양을 마친 다음 다시 밀법으로 변공하고 공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시 앞에서 제시했던 화엄시식의 차서와 구조를 보면서 논의해보자. ‘거불, 불신계, 창훈, 보산계, 출생계, 보공양진언, 사다라니, 송경, 시식계, 시귀식진언, 시무차법식진언,

발보리십진언, 보회향진언, 십념, 안과편'의 차례가 현밀의례로 성립하려고 하면, 보산계나 출생계 사이에 사다라니가 시설되어야 한다. 현교의 변공과 밀교의 변공이 짝을 이뤄 변공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의 화엄시식은 보회향진언 다음에 권반계와 법시의 계송과 장엄염불이 시설되고 있는 것은 시식의식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교의 화엄시식은 현교의 시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밀법이 거기에 추가됨으로써 옥상옥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필사본 등에 실린 화엄시식은 대체로 『석문의법』의 형식과 패를 같이하고 있지만 간혹 순수한 화엄시식의 격식에 부합하는 의문이 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⁴⁵⁾

그렇다면 화엄시식은 언제쯤 출현하였을까. 선가에서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구병시식이나 몽산시식과 같은 성격의 전시식과 달리 화엄시식은 한국불교에서 출현되었다고 보인다. 그것도 화엄산림이 성행한 18세기 이후의 모습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불교에 화엄산림이 성행한 시기는 아무래도 한국불교에서 화엄학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18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7세기 후반 실차난타에 의해 번역된 80권 화엄경이 국내에 나래된 것은 8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엄경산림이 유행된 것은 1681년 신안 임자도 앞바다에 난파당한 상선을 통해 전래된 대장경 가운데 화엄경을 모아 1692년 백암성종이 선암사에서 화엄대회를 연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제자 무용 수연이 화엄강회를 열고,⁴⁶⁾ 19세기 초 조상경을 편찬한 화악지탁이 화엄대회를 83회나 열었다는⁴⁷⁾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화엄산림을 마치고 일

45) 문학박사이자 불교의례문화연구소 법안 박영만 이사장 소장 자료.

46)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3>

47) 『華潭大師浮屠碑銘』(『한국불교전서』10), p.480중.

체의 대덕세존과 영가중과 고훈들에게 향 다미로 공양하는 화엄시식을 마침으로써 화엄산림이 회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현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 현수품의 대덕세존 공양 계송을 활용하여 축조된 화엄시식에 언제부터인가 밀법의 시식방법이 추가되어 옥상옥 같은 현밀의식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까닭에 대해 화엄시식이 지금도 지나치게 간단해 무언가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단 세 줄 화엄경 현수품을 빌린 공양의문만 있는 화엄시식이 얼마나 단출하다고 생각되었을까. 일편 이해되지 못할 것도 아니다. 결국 화엄시식은 한국불교에서 자생한 시식의식의 하나라고 보이며, 19세기 이후 봉사의 정신이 담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어

불교의례의 내적 구조 관찰이든 이를 역사 혹은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든 한국의 불교의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불교와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불교의례는 불교사상과 정신의 실천양태로서 한국불교와 불교사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한국불교사에 흐르는 불타의 정신이요, 이상이다. 그것이 원융불이의 묘법(妙法) 그대로인 것이다. 교와 선이 둘이 아니고 염불이나 송주가 원융회통된 것이 한국불교의 특징이요, 불타의 본회이다.”⁴⁸⁾ 원융불이의 정신이 가장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불교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말에 도입되고 조선에서 강력하게 시행됐던 유가의 봉사를 만난 불교는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십분 활용하여 고유 의례에 변화를 가하게 되고 조금씩 새로

48) 정태혁, 『한국불교용통사』(정우서적, 2002), p.4.

운 형태로 변용돼 세상을 맞이하였다. 그 대표적인 형태를 이 글에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불교에는 불특정 다수 존재들을 구제하는 의례로 시식의식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시식의식은 표면상으로는 음식을 베풀어준다는 뜻이지만 베풀어주는 보시는 대승불교도의 수행인 바라밀의 첫 번째 항을 차지한다. 시식이라고 하지만 보시의 대상은 음식의 재물, 진리 파지의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세 가지를 동시에 베푸는 시식의식은 특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대상을 초청하여 무차하며 시식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유가의 봉사를 만난 시식은 제사 개념을 받아들여 시식의 하나로 영반의식을 창안하였다. 영반의식은 특정의 조상을 위한 의식이지만 그 의식 안에서 다시 불특정의 무주고혼을 함께 청하는 의식으로 변형되었다. 그렇게 되어 영반의식은 다시 시식의식의 한 형태가 되었다. 가장 발달한 형태의 시식의식으로 수록제가 있으며, 수록제 가운데 명부 시왕을 중심으로 공양하고 전생의 빛을 살아서 스스로 미리 갚는 생전예수제도 16세기 중반 한국불교에 나타난다. 자신을 위해서 칠칠재를 살아서 지내는 생전예수제라고 해서 자신만을 위해 공덕을 쌓지 않고 다시 시식의식을 더하게 된다. 불특정 존재를 위한 시식의식이 더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대령 관육을 통해 법석에 혼령을 초청하여 법화경을 설해주는 영산재를 개설하는 영산작법까지 더해졌다. 생전에 자신을 위해 스스로 닦는 예수제까지도 봉사의 의례인 시식과 영반이 추가되었다. 한편 화엄경을 강설하는 화엄산림의 뒤에 화엄시식이 행해지는데 화엄시식은 현교의 시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밀교의 다라니 변공법이 더해졌다. 그 내용은 대덕세존에게 공양 올리는 방식을 활용하여 영가라는 조상과 무주고혼에게도 공양하는 형식을 생성해내고 있다.

결국 유가의 봉사를 만난 한국불교 시식의식은 불교사상의 연기철학

을 심분 활용하여 그것과 원용하였다. 시식에서 영반으로, 영반은 다시 고힌을 품은 시식의식으로 되돌아가고, 자신을 위한 생전예수재조차 조상을 위한 영반과 시식이 더해지면서 ‘조상’과 ‘나’는 불이(不二)를 체현한다. 또 일체존재들이 본래 무일물임을,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냈음을 설파하는 화엄산림을 마친 화엄시식도 현교의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밀법의 변공방법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한국불교의 시식의식의 본회가 흐트러졌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일체 존재에게 보시하고 그 존재들이 떠나없이 해탈 열반을 이루도록 하는 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거기서 한국불교 시식의식의 원용성이 더욱 빛난다.

참고문헌

『대방광불화엄경』(T10)

『지장보살본원경』(T13).

『태조실록』, 『태종실록』.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BR)1~4輯, 朴世敏 編, 삼성암, 1993.

『結手文』(BR1).

巨璇 撰, 『作法龜鑑』(BR3, 1826).

大愚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BR2).

道殿, 『集顯密圓通成佛心要集』(T46).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BR1).

『金山寺諸般文』(BR2).

『華潭大師浮屠碑銘』(『한국불교전서』10)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86/1997.

- 김준명 편, 『預修儀文』, 진북불교연합회, 1988.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1998.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2003.
- 박삼우 편역, 장벽응 감수, 『예수재의범』, 보련각, 1984.
-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 한국불교출판부, 2001.
- 安震湖 編, 『석문의범』하권, 만상회, 1935.
-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 정태혁, 『한국불교용통사』, 정우서적, 2002.
- 중국불교협회편,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 知識出版社, 1982/1989.
- 中村元 著, 金知見 譯,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84/2011.
-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제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선리연구원, 2011.
- 義天, 祭文王文, 祭芬皇寺曉聖文, 『한국불교전서』 4집, 동국대출판부.
- 이성운,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교-변공의례의 형성과 수용」, 『한국불교학』 57집, 한국불교학회, 2010.
- 이성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제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 36호, 한국선학회, 2013.
- 이성운, 「예수재의 의문 구성과 의례 실행의 특징」, 『동국사학』 66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9.
- 鄭明照,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3.
- 조성윤, 「정치와 종교」, 『사회와 역사』 제53집, (주)문학과지성사, 1998.
- 조준하, 「우리나라의 제사문화와 종묘대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 조희선·김용자, 「제례 진설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 제9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 2006.
- 최규홍, 「조상제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The utter harmony of Korean Buddhist rites of Sisik accepting Confucian memorial service

– Focusing on the ritual oration the ritual program –

The lead author : Lee, Seong-woon /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e second author : Kwak, Myo-sin / Ven, Neungeom, Buddha Academy

This writing considers Korean Buddhist rites of Sisik(施食, banquet) accepting Confucian memorial service. Buddhist rites of Sisik, in which food is given to all ghosts, is a Buddhist ritual equivalent of Confucian memorial service. This rites has been encouraged as the first Buddhist practice of faith, the donation paramita since the Buddhist idea of None restriction. It is in utter harmony with Confucian memorial service utilizing the idea of Dependent Origination(緣起, paṭicca-samuppāda)

The rites of Sisik turns to Yeongban(靈飯, banquet for the soul of dead monks and nuns), which returns to The rites of Sisik for a lonely spirit of the deceased. And Yesujae(預修齋, performing the rites while in life in order to be reborn in Buddha's land after death) praying for oneself comes to include the rites of Sisik and Yeongban. These lead us to realize non-duality between my ancestors and me. Again, the Hwaeom Sisik

finishes up with the Hwaeom forest(Dharma talk for the Flower Adornment Sutra), which teaches all beings are essentially No-one-thing and all things are the creatures of Mind. It seems to accept Byeongong(變供, changing offerings) of the esoteric teaching, not just adhere to that of the exoteric teaching.

However, it should not be asserted that the spirit of Korean Buddhist rites of Sisik has been disturbed. It can be said that it has not deviated a step from giving all of them to all beings and allowing them to achieve nirvana. This is the point that the utter harmony(圓融) of Korean Buddhist rites of Sisik,

Key words: Confucianism, holding a memorial service, the rites of Sisik, Yeongban(banquet for the soul of dead monks and nuns), the Hwaeom forest(Dharma talk for the Flower Adornment Sutra), the Hwaeom Sisik, Yesujae(performing the rites while in life in order to be reborn in Buddha's land after death), the exoteric teaching, the esoteric teaching

원고접수: 2021-05-28	심사완료: 2021-06-20	게재확정: 2021-06-25
------------------	------------------	------------------